

일·상·탈·출

북마리아나제도를 가다

원주민 차모로어 '하파데이'로 인사하고, 스페인어 '아디오스'로 떠나보내는 알듯고도 친절한 사람들. 200여년 간 이어진 스페인의 식민통치도 모자라 독일과 일본을 거쳐, 지금은 미국 자치령이 되어있는 산호섬들. 하루에도 몇 번씩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열대우 '스콜'이 쿨은 역사마저 밀려 씻어내려 간 탓일까. 바람 잘 날 없었던 역사에도 사이판의 하늘은 푸르고 바다는 맑았다.



정열적인 휴양지 '사이판'

북마리아나제도는 한국에서 3천200km 남짓 떨어진 서태평양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다. 1986년 인근에 있는 광 섬을 제외한 14개 섬이 모여 미 연방 내 자치정부로 수립됐다. 이 북마리아나제도의 주도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이판이다. 크기는 남북으로 약 21km, 동서로는 8.8km. 거제도의 3분의 1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면 쉽다. 인천에서 4시간 남짓 날아가야 한다.

사이판 공항에 내리니 자정을 조금 남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열대 특유의 들쭉거리는 향기로 냄새가 공기에 묻어난다. 게이트마다 딱하니 버티고 있는 차모로인들의 구릿빛 피부와 여기저기 늘어진 현란한 보색의 일본어와 한국어 간판이 미국령이라는 사실을 무색케 한다.

스페인 식민통치의 영향으로 이곳 원주민들 다수는 가톨릭교도. 거리마다 승용차보다는 대가족을 짐칸에 태운 픽업 트럭이 넘쳐난다. 드문드문 트럭의 행렬을 따라 달리다보니 일행을 태운 밴은 어느덧 서속 100km. 야자수와 불꽃 나무가 늘어선 차창 밖 열대의 단조로운 풍경은 60km를 달릴 때와 체감 상 큰 차이가 없다.

모래 대신 열 흡수가 탁월한 산호자갈로 공사한 덕에 시내 곳곳은 높은 기온에도 아지랑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쾌지수가 낮다. 배수로 하나 없지 않던 맹렬한 스콜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빗물이 말라버리는 도로 역시 산호자갈의 덕택이다.

사이판에서의 일정은 섬 서쪽 해안 '마이크로 비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사이판의 시내가 활법한 '가라



속살 비치는 쪽빛 바다 神도 반했다

판'이 인접해 있고 많은 호텔과 리조트가 이 비치를 끼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일본계 업체지만 한국어 가이드가 충실한 덕에 의사소통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팽하고 부서질 것만 같은 바다를 등 뒤로 마이크로 비치를 즐기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카메라에 담은 쪽죽 작품이다.

'마나가하 섬'은 마이크로 비치에서 20여분 거리에 있다. 수심 20여m까지 투명하게 비치는 코발트 빛 바다 위로 에메랄드 하나 박아놓은 듯 솟아오른 암초들은 섬, 과연 사이판의 진주라 불릴 만하다. 해변에서 출발하는 왕복 셔틀도 있지만 섬까지 가는 페리세일링도 추천할 만하다. 모터보트에 매달려 낙산과 함께 상공으로 치솟으면 지상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마나가하의 진면목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산호 사이로 물고기들이 지천으로 널린 탓에 허리 정도 잠가는 물가라면 가도 형형색색 열대어들과 헤엄치는 스노클링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이판의 매력을 한껏풀 열여섯이면 곳곳이 전쟁의 흔적이다. 태평양 전쟁 당시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전진기지로서 북마리아나제도의 전략적 가치가 있던 만큼 이를 둘러싼 전투도 치열했다. 여기저기 물 밑엔 가라앉은 전투기 잔해들이 열대어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가 하면 수몰 사일로 남은 대포들이 녹슨 채 잠들어 있다.

섬 최북단 미군에 항복하기를 거부한 채 일본군 수백 여명이 뛰어내렸다고 하는 '만세 절벽'의 깎아지른 듯한 절경은 그래서 더 아름답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엔 전쟁 후 일본인들이 세웠다는 일본군 총흔탑이 미국령에서 불끈 솟아올라 있다.

건너편 섬 티니안에서는 미군이 일본의 핵기 투항을 받아냈던 원자폭탄의 저장고가 있다. 종전의 희생

양이 됐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입장에서 이곳이 재앙의 시발점인 셈이다. 이 아름다운 열대 산호섬을 뒤로 한 채 날아간 미 폭격기 B-29는 일본 열도에서 수만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로 징용된 한국인들의 후손도 만날 수 있다. 적도 태양 아래 사탕수수밭에서 고랑을 그리워하다 숨겨진 조선인들. 그 후손인 한국계가 지금도 섬 인구의 20%에 육박한다. 김치를 읊차한 김치 등 섬 주민들 사이에선 한국계 섬의 흔적이 남아있다.

순수한 열대 풍경 '티니안'

14개의 섬으로 구성된 북마리아나 제도지만 현재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사이판, 티니안, 로타 세 곳뿐. 그 가운데 로타는 농경지와 목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북마리아나제도의 관광지는 사실상 사이판과 티니안 두 곳이다.

티니안은 사이판에 비해 개발이 덜 된 편이다. 여행객들로 북적대는 사이판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티니안은 상대적으로 매력에 떨어지는 섬일 수도 있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빠듯한 사이판의 일정에 지친 눈을 달래기에 부족함이 없다. 사이판에서 페리로 한 시간, 경비행기로는 10분 거리에 있다.

1960년대부터 가족 방학을 시작한 티니안은 사이판에 비해 사람의 손길을 덜 탄 뜻뜻한 자연이 매력이다. 어린 시절 찾아왔던 시골 할머니 맥을 열대 지역으로 옮겨놓은 느낌이랄까.

티니안을 방문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바로 섬 북동부 출몰비치의 '스타샌드' 스타샌드는 말 그대로 별 모래다. 풍화 작용을 거쳐 한 알 한 알 완벽한

별 모양으로 깎인 산호조각들이 모여 백사장을 대신 하고 있다. 풀밭에서 네 잎 클로버 찾듯 백사장에 었던 린 피서객들의 모습이 여기저기 눈에 들어온다. 손바닥으로 눌러서 별점을 보기도 하는데 별 모래가 손에 많이 붙을수록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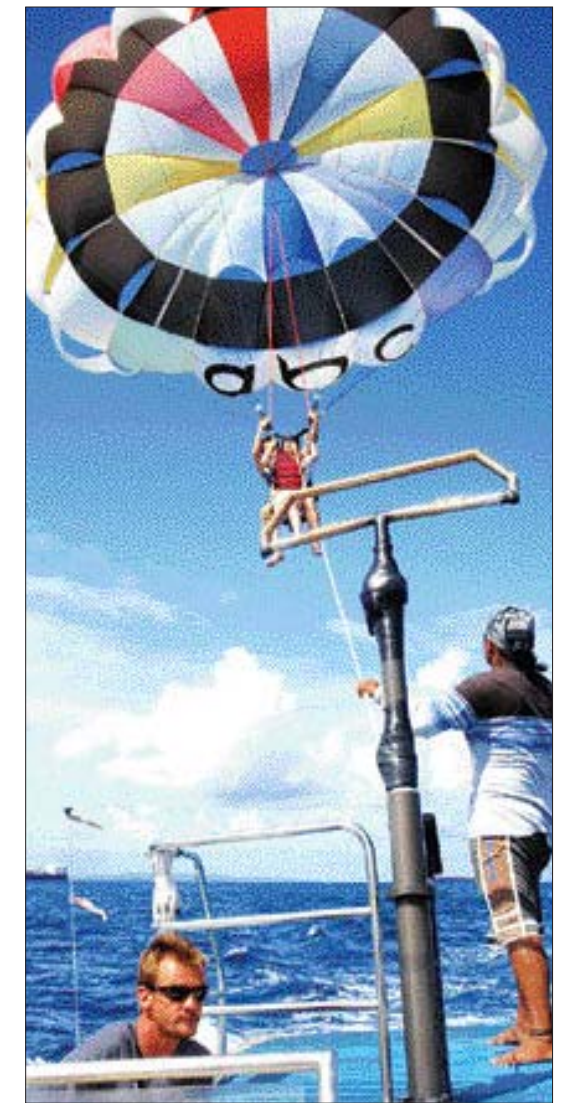
티니안에 하나뿐인 산호세 마을 부근엔 거석 유적 '타가 하우스'가 있다. 머나먼 과거 바다 건너에서 이 섬으로 온 거인 왕 타가의 집이란 뜻이다. 불세출의 완력으로 일대를 지배한 타가는 커다란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지어 살았다고 전해진다. 현재 타가 하우스라 불리는 곳은 그 집터인 셈이다. 거대 석조 유물은 근방 마이크로네시아 섬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티니안의 타가 하우스가 그 가운데 가장 크다.

출몰비치를 돌아 다시 섬 중부로 내려오면 '고래바위'를 만날 수 있다. 머리 위로 물을 뿜어내는 고래처럼 파도가 밀려오는 압력에 해변의 구멍난 바위 틈으로 바닷물이 하늘위로 솟구친다. 날이 좋을 때 최고 20m까지 뿜어져 나오는 바닷물과 무지개를 구경할 수 있다.

【부산일보=관광특수 기자 ksk@busanilbo.com 취재협조=아시아나항공-미리아나관광청 한국사무소 (www.mymarianas.co.kr)】



해변과 인접한 사이판 리조트의 수영장.



마나가하 섬에서 즐길 수 있는 페리세일링.

부동산 거래의 자유 **대중법률경제(주)** **062)228-1368** **062)226-1399**

사회모집 투자 및 배우면서 일하십시오 공인중개사 협회

지역	소재지	면적(㎡)	층	감평가	최저가	비고
동구	신수동	326/778	4층	497천	393천	사우나/기/부근
	신수동	148/257	4층	292천	192천	경매/이/모임
	금남동	274/1076	5층	191천	97천	대우/중/모임
	대동동	128/204	3층	402천	293천	중/중/모임
서구	화정동	580/7538	8층	142천	793천	대우/중/모임
	화정동	1128/2185	4층	161천	111천	대우/중/모임
	화정동	100/192	2층	292천	192천	대우/중/모임
	화정동	526/873	4층	893천	393천	대우/중/모임
북구	인동동	413/880	4층	947천	594천	시/신/모임
	신동동	188/774	4층	52천	192천	대우/중/모임
	두동동	134/238	3층	297천	192천	대우/중/모임
	두동동	204/558	4층	52천	393천	대우/중/모임
광산구	송정동	451/1180	4층	104천	72천	대우/중/모임
	송정동	979/788	3층	119천	119천	대우/중/모임
	송정동	607/1397	4층	181천	793천	대우/중/모임
	송정동	1322/205	4층	492천	292천	대우/중/모임
남구	남동동	933/258	5층	292천	192천	대우/중/모임
	대동동	524/318	5층	393천	192천	대우/중/모임
	대동동	1282/513	5층	192천	629천	대우/중/모임
	대동동	82/100	1층	192천	829천	대우/중/모임

토지 (전, 답, 임야, 밭)

지역	소재지	면적(㎡)	층	감평가	최저가	비고
동구	신수동	11278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신수동	884	192천	629천	대우/중/모임	
	신수동	313	393천	292천	대우/중/모임	
	신수동	10490	393천	292천	대우/중/모임	
북구	화정동	671	793천	594천	대우/중/모임	
	신동동	585	497천	393천	대우/중/모임	
	신동동	641	192천	729천	대우/중/모임	
	신동동	3259	393천	292천	대우/중/모임	
광산구	송정동	11798	30층	171천	수/신/모임	
	송정동	963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송정동	1128	192천	429천	대우/중/모임	
	송정동	4942	192천	393천	대우/중/모임	
남구	남동동	302	192천	393천	대우/중/모임	
	남동동	177	393천	393천	대우/중/모임	
	남동동	655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남동동	477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서구	화정동	904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화정동	5481	729천	594천	대우/중/모임	
	화정동	9817	429천	393천	대우/중/모임	
	화정동	32132	429천	393천	대우/중/모임	
북구	인동동	57102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인동동	2188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인동동	19834	393천	292천	대우/중/모임	
	인동동	3670	292천	292천	대우/중/모임	
광산구	송정동	2900	292천	292천	대우/중/모임	
	송정동	10959	292천	292천	대우/중/모임	
	송정동	39330	292천	292천	대우/중/모임	
	송정동	14678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주요 주택

지역	소재지	면적(㎡)	층	감평가	최저가	비고
동구	신수동	211/52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신수동	165/11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신수동	154/73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신수동	142/116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서구	화정동	198/42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화정동	112/116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화정동	579/105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화정동	127/84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북구	인동동	107/184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인동동	517/268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인동동	191/140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인동동	191/156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광산구	송정동	187/408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송정동	191/182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송정동	198/158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송정동	152/70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남구	남동동	512/713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남동동	453/152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남동동	1622/145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남동동	178/102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광산구	송정동	828/214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송정동	370/192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송정동	231/110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송정동	245/112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북구	인동동	630/189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인동동	245/112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인동동	630/189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인동동	630/189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주요 상업

지역	소재지	면적(㎡)	층	감평가	최저가	비고
동구	신수동	245/946	5층	111천	529천	대우/중/모임
	신수동	168/523	4층	393천	292천	대우/중/모임
	신수동	212/307	2층	192천	192천	대우/중/모임
	신수동	215/488	3층	429천	192천	대우/중/모임
북구	화정동	217/459	2층	292천	292천	대우/중/모임
	화정동	213/433	3층	292천	292천	대우/중/모임
	화정동	213/433	3층	292천	292천	대우/중/모임
	화정동	213/433	3층	292천	292천	대우/중/모임
광산구	송정동	803/2588	6층	282천	192천	대우/중/모임
	송정동	803/2588	6층	282천	192천	대우/중/모임
	송정동	803/2588	6층	282천	192천	대우/중/모임
	송정동	803/2588	6층	282천	192천	대우/중/모임

주요 소

지역	소재지	면적(㎡)	층	감평가	최저가	비고
동구	신수동	1232/017	16층	111천	대우/중/모임	
	신수동	347/670	5층	393천	대우/중/모임	
	신수동	252/473	4층	393천	대우/중/모임	
	신수동	1459/579	2층	192천	대우/중/모임	
북구	화정동	803/2588	6층	282천	192천	대우/중/모임
	화정동	803/2588	6층	282천	192천	대우/중/모임
	화정동	803/2588	6층	282천	192천	대우/중/모임
	화정동	803/2588	6층	282천	192천	대우/중/모임
광산구	송정동	122/157	192천	929천	대우/중/모임	
	송정동	112/13/13	192천	929천	대우/중/모임	
	송정동	48/15/11	192천	929천	대우/중/모임	
	송정동	112/13/13	192천	929천	대우/중/모임	

대승공인중개사 **062)954-7700, 010-9468-7959**

토지구 함 **수원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 전문**

토지매매

- ▶ 수원지구 333-1(명외변경가능) 60미터 대로인 상업용지, 3면도로 주차장인접 720㎡ 3.3㎡당 600만원
- ▶ 수원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정문 입구 상업용지 500㎡ ㎡당 190만원
- ▶ 광산구 수원동 35㎡ 대로변 자연녹지 1.762㎡ 4.231㎡ ㎡당 70만(분할가능)
- ▶ 광산구 선안동 대지 374㎡ ㎡당 30만원 (현재 상업용) 급매에 225평(실평수20평) 주거지역 (건물있음)
- ▶ 광산구 신촌동 광산대로변 지하철도 앞 상업용지 대지 286㎡ ㎡당 2억 9,000만원
- ▶ 광산구 지동동 전(모지) 643㎡ ㎡당 2,800만원

상가매매

- ▶ 광산구 지동동 산 8,595㎡ ㎡당 28,000원 현재 전으로 사용 15㎡의 진입가능 도로점
- ▶ 광산구 유계동 대지 300㎡ ㎡당 41,000원
- ▶ 광주 북구 동림동 6차선 대로변 대지 1,533㎡ 3.3㎡당 480만원
- ▶ 광주 서구 유촌동 생안녹지 4,000㎡ 30㎡ 계획도로 90㎡ ㎡당 24만원
- ▶ 은남동 주공단지 1,500세대 정문앞 마용실 (현재 상업용) 급매에 225평(실평수20평) 매매가 2억 (용 8,000만원)
- ▶ 은남동 주공단지 앞 PC방 183㎡(사비 있음) 매매가 2억 3천만원

노블메디컬센터 임대분양

▶ 수원지구 중심상권

-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5,000㎡
- 1층: 약국, 전시장, 인형점, 부동산, 이동통신업
- 2~5층: 병의원(내과, 소아과, 안과, 피부과) 4~5층(후과 등) 임대대상(평수 다량)
- 원내 지하주차장 및 원외 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 100% 확보

***1층 파파바게트 임점확정**
2층 파파존스 피자 임점확정
6~8층: 치과병원(임플란트전문) 개원 확정

수원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충전소 거래 전문

합동공인중개사 **011-646-3393, 010-8675-6200**

수원지구 4000세대 독점상권
아파트 상가 매매 및 임대

입점시기
2009년 3월 ~ 12월 (지금 준비하십시오)

권장업종

- 마트/ 제과점/ 미용실/ 세탁소/ 문구점/ 피자/ 김밥나라/ 청과/ 정육/ 차킨오피스/ 떡집/ 건강원/ 안경점/ 편의점/ 학원/ 병원/ 약국

평수
60평/ 40평/ 25평/ 13평/ 9평

매매가
7000만원 ~ 8억 2000만원

임대가
3000만원 월세 80만원
2억원 월세 300만원
보증금과 월세 전화 조정 가능함.

대금납부 방법
계약금 지불 후 상가 입점시 잔금납부, 용자가 가능함. 방문상담 환영합니다